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북한산성 행궁지 정비(5차) 공사
2. 지 정 별 : 사적 제 479 호 (2007. 6. 8 지정)
3.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169번지 일원
4. 소요예산 : 일금오억이천구백구십오만원정 (₩529,950,000-)

5. 연 혁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북한산성 안에 있는 조선시대 후기의 임시 궁궐터로 경기도 기념물 제160호로 지정되었다가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7년 6월 8일 사적 제47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

북한산성 행궁지는 조선시대 후기에 들어 1711년(숙종 37) 5월에 북한산성 수축 공사를 맡았던 김우항(金宇杭)이 산성 안에 임금 행차시의 처소 또는 유사시 임금의 피난처 및 지휘소로 이용할 수 있는 임시 궁궐을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그 이듬해에 완공된 행궁(行宮: 임시궁궐)의 옛 터이다. 숙종 37년(1711) 8월에 착수하여 그 이듬해인 숙종38년(1712) 5월에 완공한 행궁은 왕비가 거처하는 내전(內殿)과 임금이 정사를 돌보는 외전(外殿)으로 나뉘어 지어졌는데 『북한지(北漢誌)』에는 내전영역 정전(正殿) 28칸과 좌우의 행각방(行閣房)9칸, 청(廳)5칸, 중문 1칸, 대문3칸, 수라간(守刺間: 궁궐 경비실)5칸, 등 총54칸이 지어졌고 외전은 정전 28칸을 비롯하여 외행각방(外行閣房), 누(樓), 청, 곳간(庫間) 등 부속건물이 총 61칸이 세워졌다. 행궁 전체적으로는 약 130여 칸에 이르는 규모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는 내전 터에 앞면 7칸, 옆면 4칸의 주춧돌과 온돌 유구, 기단부위의 유구 및 축대와 계단을 정비하였고, 외전지 역시 외전 초석과 좌우 협칸의 온돌 유구 및 석축과 계단 등을 정비해놓은 상태이다. 주변에는 석축, 담장 등의 자취와 함께 기왓장들이 드러나 있다. 내전지를 중심으로 전면에 어도와 대문 외전지로 내려가는 계단이 설치되고 그 좌우로 행각이

둘러싸고, 체계적인 배수처리와 후면의 화계 등은 궁궐로서의 위용을 보여 주고 있다.

1915년 7월 수해 이전에 찍은 사진에 의하면 북한산행궁은 입구에서 외전을 거쳐 내전으로 오를수록 층위가 높아지며 단을 이루는 축대를 조성하고 건물을 세웠으며 팔작지붕의 내외 정전을 축으로 하여 부속건물이 질서 정연하게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석재의 가공과 축조방법은 당시의 성숙된 축조 기술을 보여주고 있으며, 내·외전지 좌우협칸에 남아있는 온돌의 유구는 당시 구들의 구조를 알 수 있고 함실아궁이의 위치도 파악된다. 북한산성 행궁지는 지형에 순응하여 축대와 배수로를 설치하고 그 위에 전각을 구성하였으며 이로써 18세기 초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동안의 행궁의 공간구성과 배수시설에 대한 실증자료, 사료 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6. 현 황

6-1. 주변 현황

북한산성 행궁지는 상원봉 아래, 북한산성 내 동남쪽에 자리하고 있다. 행궁지의 좌향은 서남서에서 북북동쪽을 바라보는 자리로, 산등성이를 등지고 행궁지 좌 우측으로 계곡이 행궁지 아래에서 합류하게 되어있어, 3면이 고지대로 둘러싸고 아래쪽으로는 계곡이 진 지형을 이루고 있다. 1998년 지표조사를 시작으로 2011년 시굴조사를 실시하고 2012년부터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5차 발굴조사까지 종료되었다. 현재는 내전 터에 앞면 7칸, 옆면 4칸의 주춧돌과 온돌 유구, 기단부위의 유구 및 축대와 계단을 정비하였고, 외전지 역시 외전 초석과 좌우 협칸의 온돌 유구 및 석축과 계단, 내부 배수로, 탐방로 등을 정비한 상태이다.

6-2. 대상지 현황

행궁 주변의 배수로는 행궁지 외각 담장지부터 행궁지 외부 북측으로 자연 형성된 배수로로 과거 작은 도수로 정도의 배수로는 있었던 흔적이 확인되는 구간이 있으나, 현재는 대부분 토사로 이루어지고, 일부구간은 초기 공사 시 임시 배수로를 화강석으로 배수로 측벽을 쌓았으나 현재 일부는 석축이 흐트러지고 변형된 것을 부분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행궁지 외곽으로 안정적인 배수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붕괴된 배수로 측벽을 정비하고 배수로의 선형 조정 및 배수로 구조 보강 등이 시급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2020년 현재 행궁지 정비(4차)공사가 진행 중이며, 북측 배수로 초입부분에 집수구와 날개벽 등 배수로공사가 대상이다.

7. 보수공사

7-1. 보수지침

- 북한산성 행궁지에 대한 사례조사 및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실시설계 도서에 대한 근거 및 타당성을 확보한다.
- 보수범위는 현지 조사결과에 따라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7-2. 보수계획

- 현재 배수로의 선형이 과도하게 꺾여 있는 구간은 일부 선형을 정리하여 배수로가 유속에 의해 세굴되지 않도록 정비한다.
- 배수로는 화강석(문경석)을 사용한 석재 배수로를 설치하여 주변과 조화되도록 배수로를 보강한다.
- 배수로 바닥은 굴곡있는 자연석 박석을 깔아 하부 토사 유실 및 세굴을 방지한다.
- 지형을 고저차이가 많은 구간에는 낙차공을 설치하여 배수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7-3. 보수개요

□ 북측배수로 정비

- ▶ 배수로정비: 24m (W1.4xH0.8) 배수로 석축은 허튼층 퇴물림쌓기로 하여 약간의 경사가 유지되도록 한다.
- ▶ 계단식 낙차공(가) : 2개소(계단4단, 길이 3.4m) 지형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퇴물림쌓기로 낙차공 pool과 계단을 조성하여 유속을 완화하도록 한다.
- ▶ 계단식 낙차공(나) : 1개소(계단5단, 길이 3.7m) 퇴물림쌓기로 낙차공 pool과 계단을 조성하여 유속을 완화하도록 한다.
- ▶ 배수로 정비에 사용되는 석재의 재료 : 현재 진행중인 4차 배수로공사와 같은 재료인 자연 화강석(문경석)을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주면서 행궁과 조화되도록 한다.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